

왕 가 위 의 화 양 연 화 ?  
김 영 하 , 이 우 일 의 화 양 연 화 !  
“1999년쯤에 만났어요. 제 친구 중에 디자인을 하는 동기가 있는데 이우일 씨와 같은 홍대 ‘네모라미’ 출신이라서 우연히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지요. 나중에 우일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 무렵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가 나와서 그 책을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영하의 기억처럼 둘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지금도 두 사람은 자주 술자리를 갖는다. 생각보다 다른 점도 많지만, 그 다른 점 때문에 자주 만나고, 또 비슷한 점 때문에 자주 술을 마신다.

“영하 형 소설을 읽고 이런 소설가가..., 허걱, 만화가보다 낫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영하 형 책은 다 사서 읽었어요.”

최근 이 두 사람은 함께 《김영하와 이우일의 영화이야기》라는 책을 냈다. 김영하의 글과 이우일 그림의 만남 자체에서 예견되듯이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책은 영화와 요즘의 문화 사이를 가볍게 부유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연재될 때 네 컷 만화만 보다가 단행본으로 보고 우일 씨가 재능이 많구나 알았어요. 유머러스하면

서도 잘 그러요. 그 무렵부터 가까워져서 공동작업을 해보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죠. 때마침 마음산책에서 제 글을 묶어서 책으로 내기로 했는데, 이우일 씨랑 하고 싶다고 했더니 정은숙 대표가 좋다고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뽀뽀한 소설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책에 다들 열광하는 분위기”라고. 좀더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전에 나온 김영하의 영화 산문집 《굴비낚시》는 이번 책에 비해 부피도 작고 문학적이고 다소 감상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번 책은 이우일의 그림을 만나 텍스트로 쓰인 영화에서 한결 자유로워졌다. 책 속에서 〈메멘토〉〈화양연화〉〈디 아더스〉 등의 영화는 이 둘의 손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실제 영화와의 일정한 거리, 이 거리가 이 책의 개성이기도 하고, 직업적인 표현을 하자면 구매 요인이기도 하다. 내가 본 〈화양연화〉와 이들이 본 〈화양연화〉는 다를 것이라는 그 거리감 때문에 사람들은 굳이 본 영화에 대한(그 반대일지라도) 산문집을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뜻밖에도 기대치 않은 선물도 하나 얻는다.〈〈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가 비로소 자신의 중요성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영하처럼 “오늘 몽땅 그대들이 그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순풍산부인과〉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소심한 만화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사람이 함께 한 동기는 더 선명하고 전문적(?)인 연유 때문이다. “영화책에 영화 스틸 이미지를 쓰는 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영화 스틸 이미지는 흔해서 홍보할 때부터 신문, 잡지, 여러 곳에서 보니까 좀 식상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책으



## 소설가와 만화가의 유쾌한 소통기



로 묶이면 낱아보이는 면이 있구요. 본 사람이 많으니까 낱은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용을 안 보고 사진만 보면 다 아는 건 안다고 지나가고 모르는 건 안 본 게 많아 지나가게 되죠.”

이 책을 작업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서로의 독자층에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소설가였지만, 이우일 씨 이름을 보고 샀다는 독자서평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 둘의 독자층이 별로 안 겹쳐요. 재미있는 사실이죠? 그러고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만화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덕분에 소설 한 번 보고, 소설만 보고 만화 전혀 안 보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일러스트나 그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 자 의 식 으 로 구 별 되 는 사 람 들

“우린 예술가적 자의식들이 강한 편이죠. 보통 소설가들은 선생, 지사처럼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술가로서의 소설가, 그런 자의식이 더 강해요. 이우일 씨도 끊임없이 자기를 예술가로서 각인하고 몸을 만들어간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작가적 지향점과 대중과의 접점을 잘 만들어내는 예술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하면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우일 씨의 독보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거지요.”

소설가와 만화가의 즐거운 영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지만, 책에서도 밝혔듯 이 둘이 함께하는 영화 산문집은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김영하는 본업인 소설에 주력할 생각이고, 이우일도 현재 방대한 작업에 매달려 있기 때문. 하지만 두 사람이 당면한 역작

을 끝내고 나면, 영화 산문집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김영하의 글과 이우일의 그림이 어우러진 소설집이나 단행본을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현재로선 당면한 작업들이 만만치 않은 까닭에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구상중이다.

이우일은 몇 년째 김영하와 계약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매달려 있다. 뻑뻑한 10권 정도로 묶을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은 기획 자체가 이윤기 선생님 책 나오고, 그럴 때 기획된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출판사에서도 기대를 많이 버렸어요. 저도 부담을 덜고 있고, 다른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질로 승부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괜찮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좋은 작품이 될 거 같아요. 항상 호흡이 짧은 콩트나 카툰만 해왔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호흡이 길어지고 서사가 생겼다는 게 이전까지의 작품과 가장 다른 특징이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평소에 영하 형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술 마시자고 자꾸 꼬시는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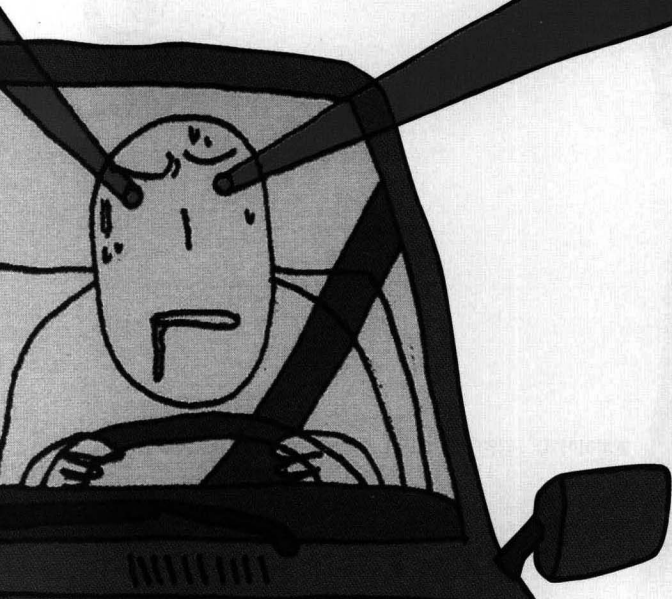
김영하가 보기에 이전에 나온 관련 책들이 줄거리를 단순히 소개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우일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작가적인 해석과 개입이 많이 들어간, 새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과 테 말 라

“지금 장편을 한 편 쓰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주요 무대이고 후반부 배경이 과테말라예요. 과테말라에 가서 후반작업까지 하고 소설을 완성하고 오려구요. 자료조사도 할 겸 두세 달 가량 머물 예정입니다. 저야 와이프랑 같이 가니까 좋은데 와이프는 괴롭죠. 소설이 20세기 초에 그곳으로 간 사람들 이야기라 에어컨이 없는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김영하에게 이런 순진한 면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날 밤에 느꼈던 그 후텁지근함을 나도 느껴보려구요. 한국과는 다른 끈적끈적한 정서를 체험해 봐야죠. 와이프는 그럼 난 시설 좋은 데서 잘 테니 당신만 그런 데 가서 자라, 난 안 된다. 예술혼을 불태워야 한다, 요즘 그러고 있어요.”

김영하가 이번 장편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은 에어컨 있는 호텔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책하고 놀자〉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

“〈책하고 놀자〉를 1년 반 정도 진행했어요, 제겐 소설 쓰는 것보다 쉬웠어요. 가서 떠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내 돈 내고 술 먹여가며 떠들기도 하는데, 돈 받고 늘 보는 책 이야기 하는 거니까 즐거웠죠.”

글과 문자에 대한 김영하의 애정은 전 세대 선배작가들과 다름없지만, 그를 이전의 한국작가들과 구별짓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돋보이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자의식 혹은 동시대의 문화 코드를 읽는 발달된 감각에 있을 것이다.

“한국 자본사회의 물질 토대들이 많이 성장하니까 자동차나 집으로 부를 과시하는 건 이제 촌스럽죠. 청담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취향을 가지고 구별짓는 사회로 우리도 돌입하고 있죠.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문화예술 장르도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거 같아요. 자신의 취향이 고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비하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교란하는 것이 당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주요한 활동 영역이 아닐까 해요. 고급예술과 대중예술,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고, 이른바 키치와 예술 사이를 자꾸 교란하고 흔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아주 느끼해지거든요. 아주 못 봐주는 세상이 와요. 전 그런 작업에 관심이 많아요.”

## 김영하의 사십세

지난 2월 초에 김영하는 한 일간지가 선정한 ‘차세대 리더 작가’로 뽑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

“전 맨날 차세대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차세대로 뽑힌다는 것은 아직 안 떴기 때문이고, 다른 유형의 작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관심사도 다양하고 욕심도 많고, 소설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계보를 찾기 어려운 소설들을 많이 써왔고 이후의 가능성들을 많이 보는 거 같습니다. 차세대라는 건 아직은 안 떴다는 거죠.”

“형 너무 겸손한데?”

“(이우일을 쳐다보며)이건 진실이야. 그들이 나를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나를 작가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좋은 거라고 생각해. (자세를 바꾸며)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소설을 쓸 거예요. 그리고 최근 소설가로서 상당 부분 몸이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부터는 잘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소설적인 육체와 육체의 육체가 잘 만나는 거 같아요. 그동안 빼격거릴 때도 있었는데 여러 모로 탄력 받고 있어요. 호흡도 길어지고 있고... 최근의 단편들도 이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지요. 올해 창비에서 단편집이 나오는데, 이전의 단편집과는 다른 작품집이 될 겁니다. 작품집 제목은 잠정적으로 <오빠가 돌아왔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하와 이우일은 그들의 나이가 사십, 불혹이 되기 전에 자기만의 것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평범한 문장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정직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우일은 그걸 《그리스 로마 신화》로 생각하고 있고, 김영하는 현재 쓰고 있는 장편과 이어질 소설들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부터 사십까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놀았고, 몇 년 있으면 마흔이 되는데 장편하고 단편소설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른바 문학적 인생으로는 제3기로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이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과테말라도 가고, 제 나름대로 이 장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사십이 되기 전까지 제 자신이 작가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길 바랍니다. 장편이 나오면 그때 또 <출판저널>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